



20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장 창당대회에서 안철수·김한길 창당공동위원장과 임내현(왼쪽 세번째)·이근우 광주시장 공동준비위원장(· 두 번째)이 꽃다발을 들고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새정치연합 창당은 광주의 명령”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20일 광주시장 창당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

김한길·안철수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광주에서부터 변화와 희망의 새기운을 국민에게 선사하자”고 광주 창당대회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관련기사 4면〉

특히 안철수 준비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5·18 민주화운동과 6·15 남북공동선언 등을 정당정책에서 제외했다는 논란에 대해 거듭 사과했고 “5·18은 현대사의 이정표”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발기인과 당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당대회를 열고, 임내현·이근우 창당 공동 추진위원장을 공동위

신당 광주시장 창당대회
발기인·당원 1천여명 참석
안위원장 정강정책 사과

원장으로 선출했다.

이근우 공동위원장은 “시민들이 특정 정당의 장기적 독점과 구태정치로의 회귀에 대한 우려, 광주 정체성 상실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광주시당이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정치와 정권교체를 위해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한길 준비위원장은 인사발기인과 당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당대회를 열고, 임내현·이근우 창당 공동 추진위원장을 공동위

주주의와 민생을 책임지는 정치,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 호남이 자랑스러워하는 정치를 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 “광주가 그동안 보여준 민주당에 대한 사랑과 새 정치에 대한 열광을 모아준다면 2017년 정권교체를 이뤄낼 수 있다”면서 “민주당의 기록권을 고집하지 않고, 거침이 돼 정권교체의 꽃을 피우겠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준비위원장은 정강정책 논란에 대해 “뜻하지 않는 논란으로 불편하게 해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며 “당의 강령에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삭제요청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5·18은 계속 발전해야 할 미래이며, 새로운 정치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문한 광주 5·18 민주묘역에서 안 준비위원장은 6·15공동위 광주 전남본부 회원들로부터 환영을 받는 등 끈목을 치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도 안 준비위원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논란 지속은 누구에게 이익

인지 생각해보자”며 해명했고, 방명록에도 “5·18의 희생을 기억하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겠습니다”고 남겼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8일 경기도를 시작으로 대전·광주(20일), 인천(21일), 부산(22일), 서울(23일) 등 6개 지역의 시·도당 창당대회를 연 뒤 20일 중앙 창당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어 민주당과의 합당대회를 열어 이달 내에 야권 통합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달 초부터는 6·4지방선거에 나설 광역단체장 및 광역의원 후보 경선을 하고 후보를 확정짓는 방침이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학교설립 60주년 (1954~2014)
60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제63기 수습·편집경력기자 최종 합격자
▶수습기자=임준표·정달 ▶편집경력기자=김지영
光州日報社

2016년까지 규제 20% 없앤다

규제비용총량제 내년 시행...지자체에 지방규제개혁 추진단 설치

정부 규제 개혁방안

오는 2016년까지 경제관련 규제 2200개가 사라져 정부에 공식등록된 전체 규제가 현재의 80% 수준으로 낮아진다. 또 신설되는 규제를 관리하기 위한 영구식 규제비용총량제가 도입돼 내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모든 자치단체에는 규제 개혁의 ‘총대’를 짊어 지방규제개혁 추진단이 구성된다. 〈관련기사 2면〉

정부는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간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을 보고했다.

국무조정실은 우선 2013년 현재 1만5269건으로 집계된 등록규제를 2016년까지 80% 수준인 1만 3069개로 줄인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투자와 밀접한 경제관련 규제 1만1000개를 중심으로 올해 10%(1천100개) 감

축 목표를 세우고 부처별 특성에 맞게 감축량을 할당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일정기간이 지나면 규제효력을 자동으로 없애거나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는 ‘일몰제’ 적용을 전체의 12%(1800건)인 현재 수준보다 확대해 50%(7500건)까지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새로 생겨나는 규제를 관리하기 위해서 영구식 ‘규제비용총량제’(cost-in, cost-out·코스트인, 코스트아웃)를 내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는 규제 신설시 ‘비용기준’으로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국민과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규제관련 비용의 총량이 더 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오는 7월 국토교통부, 환경부, 중소기업청 등 7개 부처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한 뒤 내년 1월부터 이를 전면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4월부터 모든 신설규제에 ‘네거티브 규제 방식’과

‘효력상실형 일몰제’를 원칙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네거티브 방식이란 제도나 정책 등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규제를 통해 금지하는 것이므로 규제에 의해 금지되는 항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창업이나 신산업·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이를 우선 적용해 민간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밖에 미등록 규제를 대거 발굴해 감축하고 ‘손톱 밀기’ 민원에 대해서는 부처가 3개월 내 직접 소명하는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모든 자치단체에 지방규제개혁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자체 규제 전수조사를 거쳐 발굴된 불필요한 규제를 안행부와 시도에 설치된 ‘지방규제 개선위원회’에 상정해 해소절차를 밟도록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의사협회 집단휴진 철화...의·정 협의안 수용

대한의사협회가 20일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수용해 오는 24~29일로 예정됐던 집단휴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20일 낮 서울 용산구 이촌로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7일부터 이날 정오까지 진행한 회원 투표에서 전체 투표 회원의 62.16%가 집단휴진 유보를 택했다고 밝혔다.

의·정 협의안 채택과 집단휴진 강행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은 이번 투표에는 의협 시·도의사회에 등록된 회원(6만9923명)의 59%인 4만1226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지난 16일 발표된 의·정 협의의 결과를 수용하고 24일로 예정된 집단휴진을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와 의협은 협의

를 통해 원격진료 선(先) 시범사업 실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의 내용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개표 이후 “의료공백 사태를 염려했을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의사들의 노력을 국민들

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말부터 원격의료 문제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전개해온 의협 투쟁은 지난 10일 전국적으로 일부 의사들의 집단휴진 사태로 이어졌으나 20일 의협이 의정 협의의 결과를 수용키로 함에 따라 의사들의 ‘집단휴진 사태’는 일단락됐다. 〈연필뉴스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The C-Class 36개월 무이자 할부
062)226-0001
Mercedes-Benz

코스닥상장기업 참종은여행이 북유럽 여행을 시작합니다!

불필요한 중간대리점 수수료를 없앤 합리적인 여행 [참종은여행]

어릴 적 배운 내용이 이미 우리가 알고 실천하고 있는 것처럼 여행상품도 중간 유통과정을 줄이면 소비자 가격은 내려갑니다. 고객의 혜택을 위해 중간 대리점 수수료를 없앤 합리적인 여행. 대한민국 직판 여행사 참종은여행을 만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다 좋다 참종은.

서유럽	동유럽/발칸	터키	북유럽	스페인/포르투갈
<p>[유럽자유선언] 베르사이유+에펠&세느 볼레이 서유럽 6개국 12일 2,390,000~</p> <p>관람객들만 [유럽자유선언] 베르사이유+에펠&세느 볼레이 서유럽 6개국 12일 2,390,000~</p> <p>[북부 노르망디] 북부 노르망디 12일 2,390,000~</p>	<p>[동유럽] 드디어 프랑스와 만나다! 스토라스부르+동유럽 5개국 9일 2,390,000~</p> <p>직항출발! 오직 참종은여행에서만 하는 또는 관광지 스토라스부르+발칸 9일 2,390,000~</p> <p>[동유럽] 동유럽 9일 2,390,000~</p> <p>[동유럽] 동유럽 9일 2,390,000~</p> <p>[동유럽] 동유럽 9일 2,390,000~</p>	<p>[터키] 이스탄불+카파도키아 9일 2,390,000~</p> <p>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나라. 지중해의 꽃 터키여행 2,390,000~</p> <p>[터키] 이스탄불+카파도키아 9일 2,390,000~</p> <p>터키 여행 9일 2,390,000~</p> <p>터키 여행 9일 2,390,000~</p>	<p>[북유럽] 스웨덴+핀란드 9일 2,790,000~</p> <p>북유럽까지 유일한 최단 직항 편도 항공 3인승 회차 편도 북유럽 여행객의 25% 승객 실례 KNOW-HOW가 더합니다. 2,790,000~</p> <p>[북유럽] 스웨덴+핀란드 9일 2,790,000~</p> <p>북유럽까지 유일한 최단 직항 편도 항공 3인승 회차 편도 북유럽 여행객의 25% 승객 실례 KNOW-HOW가 더합니다. 2,790,000~</p>	<p>[스페인/포르투갈] 마드리드+바르셀로나+리스본+세비야 스페인 8일 1,490,000~</p> <p>[스페인/포르투갈] 마드리드+바르셀로나+리스본+세비야 스페인 8일 1,490,000~</p> <p>[스페인/포르투갈] 마드리드+바르셀로나+리스본+세비야 스페인 8일 1,490,000~</p>

문의전화 062.515-7600 | 팩스. 062.515-6060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20 타워팰리스 401호